선천성 기형아 낳을 확률이 높다

15. 소화성 궤양을 일으킨다.

흡연은 위장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인자중의 하나로 크게 관여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소화성궤양은 비흡연자에 비해 1.5~2.0배 이상 높다. 소화성궤양은 흡연량, 흡연기간, 그리고 담배연기를 깊이 들여 마시는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 십이지장으로의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사망률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2~4배 더 높다. 흡연은 위하부의 유문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켜 담즙이나 췌액을 위내로 역류하게 하여 위궤양의 원인인자로 작용한다.

또한, 위점막의 혈관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위점막의 혈류량이 저하되어 위궤양을 악화시키고 치료효과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위궤양이 있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치료율도 낮고, 재발율도 높아지고 있다.

흡연은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알칼리성췌장액과 담즙분비를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내용물중 액체성분만을 빨리 십이지장으로 유입시켜 고형성분이 위에 머무르게 되므로 십이지장내의 산도는 더욱 상승되어서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연기 성분 중의 니코틴은 췌장의 중탄산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위로부터 유입되는 위내용물의 위산수준에 대한 중화작용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16. 유방암을 일으킨다.

덴마크 연구팀은 30년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0% 이상 높아지며, 유방암에 걸리는 연령도 비흡연자들이 평균 67세인데 비해 흡연자들은 59세였다고 보고했다.

17.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골다공증은 여러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지만 중년 이후의 골다공증은 흡연이 주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중에서 조그마한 외상으로도 척추압박골절과 팔 등에 수지골절이 흔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것이며 이는 흡연자에게 높게 나타난다.

흡연은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여 산성혈이 되며, 산소분압과 조직내 비타민C 농도가 저하되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되고, 혈중 칼슘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어 일시적인 저칼슘 혈증을 일으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데 기여한다.

18. 선천성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담배를 피운 산모가 유전적으로 기형아를 낳는가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운 산모의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날 위험이 높다는 증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니코틴 같은 담배 연기의 성분들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신체에 전달하는 산소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태아 성장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스웨덴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3개월 이내) 담배를 피운 산모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산모보다 언청이를 낳을 가능성이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나 된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이 피우면 그만큼 언청이를 낳을 위험이 늘어난다고 한다.